

보도자료

2011년 10월 18일(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정현철(710-6440) hchung@kcc.go.kr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최남호사무관(710-6460) nhchoi@kcc.go.kr

국산 IPTV 보안기술 국제표준 채택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임차식)은 우리나라의 IPTV 보안기술이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표준(ITU-T X.1193*)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Recommendation ITU-T X.1193, Key management framework for secure internet protocol television(IPTV) services

이번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IPTV 키관리 기술은 IPTV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IPTV 키관리 요구사항, 유니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위한 키관리 기법, 내려받을 수 있는 IPTV 서비스를 위한 키관리 기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 첨단 방송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표준 채택을 위하여 민관협력 기구인 한국ITU연구위원회(위원장 임차식)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8월 신규 국제표준화 과제로 우리나라의 IPTV 키관리 기술을 ITU에 제안한 후, 3년 여간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지난 13일 국제표준화에 최종 성공하였다.

※ IPTV 키관리 기술 국제표준 채택 관련 주요 경과 : 신규 국제표준화 과제 제안 및 채택('08.8월), 국제표준화 승인('11.8월, ITU-T SG17), 최종 승인('11.10.13)

이번 국산 IPTV 키관리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은 IPTV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290억 달러*(12년 기준)에 이르는 IPTV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보안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 IPTV Global Forecast 2008 to 2012, MRG(Minorities Research Group), '08.10월

임차식 국립전파연구원장은 IPTV 키관리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이 민관협력 기구인 한국ITU연구위원회의 성과임을 강조하고, 보다 많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기술 및 서비스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